



최초의 캠프의

9월 보고서

이유가



위대한 캠프
RaonAtti 로 살며, 배우다

Key word **같이** **보는** **시간**

캠팀의

9월 말이



1

달력으로 보는 캠팀의 한달



2

사진과 함께 보는 캠팀의 하루



3

캠팀의 활동 속으로

- YMCA Learning Center
- Youth Institute
- Elder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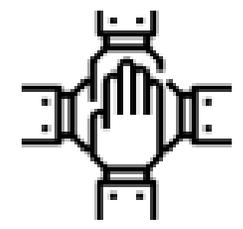
4

캠팀의 일상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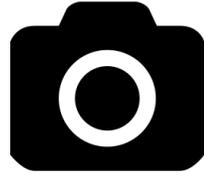


5

함께 했던 우리의 이야기



자신으로 보는 캠프의 하루



오전 7시
YLC 아침 맞이



오전 8시
수업 시작~

오후 12시
맛있는 점심 타임



오후 2시
오후 수업 시작!



오후 6시
크메르어 수업 중~



Bunthok과사의

(Cambodia YMCA 총장님)

Meeting



첫 미팅에서의 우리들

- YMCA 소개
- 라온아띠 소개
- 활동 소개
- Q&A 시간



활동 관련한 관계자 미팅

- YMCA Learning Center 소개
- Youth Institute 소개
- 앞으로의 활동 토의
- Q&A 시간

Youth Institute 방문



Youth Institute

- Youth Institute에 대한 설명을 듣는 중
- 여기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봉사자들과의 만남 
- QnA 시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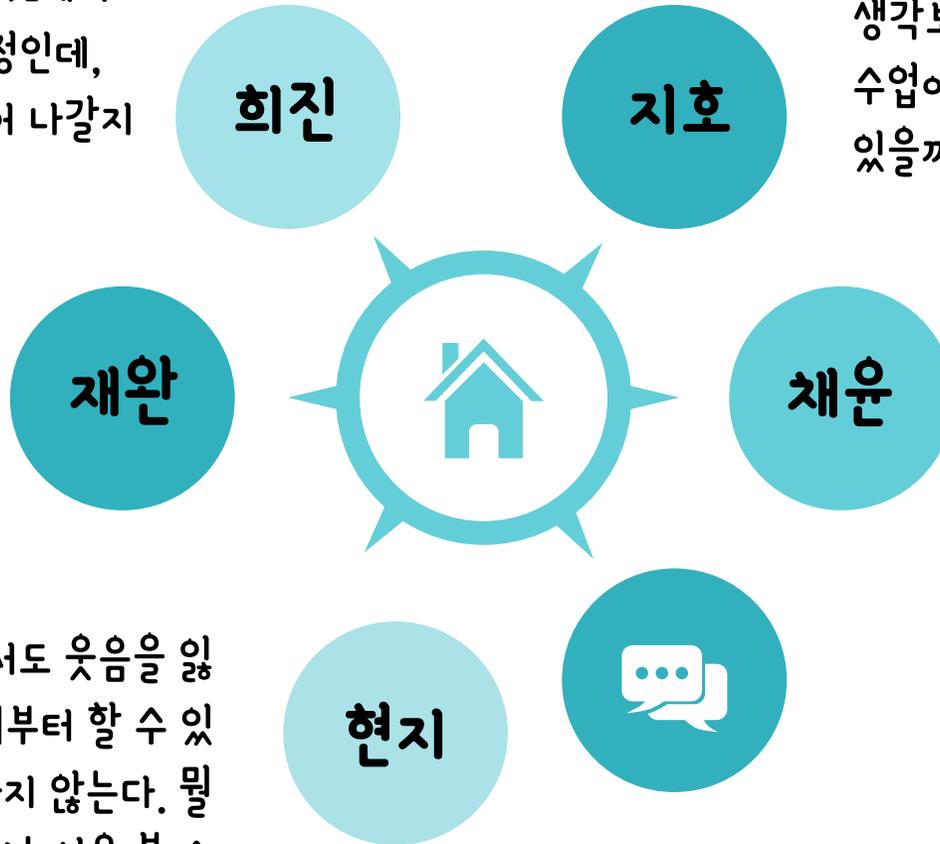
- 첫 만남에서 스스럼 없이 다가와준 아이들!
- 한국의 손바닥 놀이를 가르쳐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Youth Institute를 다녀온 후

아이들과 함께한 순간은 짧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함이 기억에 남는다. 10월에 YI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아이들과 함께 어떤 추억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된다.

'이곳이 학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작고 허름한 곳 이었다. 그렇지만 학교 안은 매우 밝고 건강한 아이들과 봉사자들로 매우 생기가 가득했다.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과 그 사이에서도 웃음을 잃지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뭐부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뭘 해줄 수 있을까? 막막함과 동시에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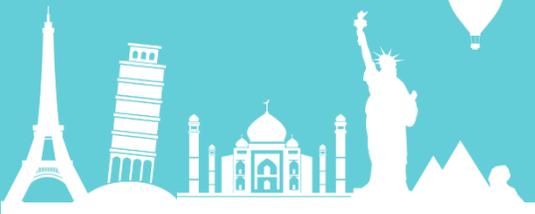
생각보다 센터의 상황이 열악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바로 앞은 기차길이고 주변은 쓰레기가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아이들은 입을 한껏 벌리면서 웃고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마냥 쉬지 않고 뛰어다닌다. 장난감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만 노는 활기차고 또 활기찬 곳이다.



Elder People

방문



Elder people이 사는 마을 방문

- 마을 소개
- 마을의 사시는 분들을 사연을 들을 수 있는 시간
- QnA 시간



판자촌의 모습

- 캄보디아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 YMCA에서는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Elder People에게 다녀온 흥

왼쪽에는 대학이 오른쪽은 판자촌이 있다. 대리석 바닥인 집.
나무판자로 지어진 집. 지붕에 뚫린 구멍으로 햇빛이 내리쬐는 집.
커다란 개가 들락날락 하는 집. 우리는 집들 사이사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로 걸어 다녔다. 난 내가 보는 모든 것에
머릿속이 짝 찢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각자의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강인함이 가득하던 그들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나도 눈물을 흘렸다.

열악한 환경에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한정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겠
다.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
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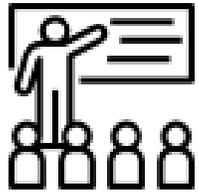
무너져가는 집을 보고 우리,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이 곳에 오는 것보다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내가 왜 이
곳에 있을까. 무력감이 차 올랐다. 과연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
을지, 무엇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지
만, 아직 잘 모르겠다.



YMCA

Learning Center의 선생님이 된 킴-팀



‘teacher’ Jiho(지호)

나를 돌아보며

갑자기 Y.L.C 수업에 들어가게 되어 나도 당황스러웠고 내가 들어가는 반의 담임 선생님도 당황스러워했다. 영어가 서로 부족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들은 많이 힘들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이 하는 크메르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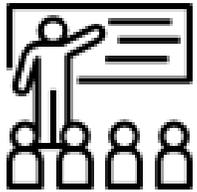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점점 내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루에 2시간은 나 혼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YLC 수업을 통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YMCA

Learning Center의

선생님이 된 킴-팀



'teacher' Chiva(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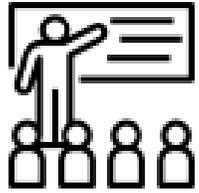
나를 돌아보며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이 들어갔던 영어 수업시간이 막막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할지 계속 고민되었다. 담당 선생님이 없어 그냥 수업을 진행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 를 고민하다가 이야기 만들기를 했다. 아이들이 문법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하게 무언가를 생각해볼 수 있길 바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수업은 지루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순간 순간 겁이 났었다. 조금씩 익숙해져 가지만 생각은 많아져만 가는 것 같다. 10월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이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에 망설임이 가득하다.

YMCA

Learning Center의

선생님이 된 킴-팀



‘teacher’ A-ya(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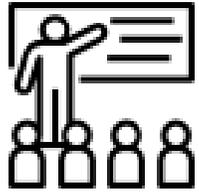
나를 돌아보며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센터 안을 아다다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마당에서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타기도 한다. 좀 큰 애들은 미리 교실에 들어가고 8시에 맞춰 따르릉 종이 울리면, 자기 몸집만한 가방을 맨 아이들은 우르르 자기 교실로 들어간다. 아마, 제일 작은 아이와 제일 큰 아이의 나이가 10년은 넘게 차이 나지 않을까?

YMCA

Learning Center의

선생님이 된 킴-팀



‘teacher’ Samnang(재완)

나를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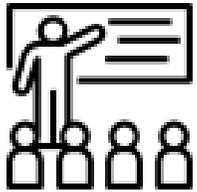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말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나를 보았다. 그렇지만 피하지 않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언어는 몰라도 서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씩 생기게 되었다. 비록 아직 서로 말도 잘 통하지 않으며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 부딪히며 같이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친구가 되어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그들과 살아간다.



YMCA

Learning Center의

선생님이 된 킴-팀



‘teacher’ Linda(현지)

나를 돌아보며

수업을 기획하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고민이 생겼다. 봉사라는 말에 얽매어 엄청나 보이는 것,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서 정작 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아무래도 나는 레벨의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주고, 더 넓은 세상을 알려 주고 싶었지만, 노력한 만큼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친해지지는 못해서 그 점은 너무 아쉽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할 때는 많이 놀랐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줄은 몰랐는데, 나는 그때는 감동과 의아함을 느꼈던 것 같다. 우리가 크메르어를 배우듯, 아이들도 우리를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

캠팀의 일상 속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 정전이 되어 간이 조명을 만들었다. 잘 안보이지만, 저녁 먹는 중~



덴마크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을 초대해 한국의 삼겹살을 선보인 날~ 반응 대폭발!



YMCA Learning Center의 선생님들과 함께 회식 중~!

캠팀의 일상 속으로



T.K avenue라는 캄보디아의 번화가에
가서 맛있는 중국 음식을 먹었다!

희진의 생일을 맞아 우리끼리의
조출한 생일 파티!
Happy Birth Day~ 희진!



크메르어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피자
맛집에 고고~

캠팀의 일상 속으로



캠팀은 회의 중~ 카페에서 집!중!집!중!

캠팀은 저녁 나눔 중~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



갑작스레 내린 폭우에 우비 소년, 소녀가
된 캠팀!



캠팀의 일상 속으로



크메르어 공부 중~ 어렵지만 열심히!
놓치지 않을 거예요 ❤️



캠팀의 삼시세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희진

간사님께서 여태까지 라온아띠 중에 가장 빨리 혼난 팀이라고 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고, 이 곳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것 같다.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함께 친구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변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항상 질문을 던져보아야겠다. 10월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더욱 많아져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기대가 된다.



채윤

처음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왔다. 2주 동안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춤도 추면서 시간을 보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듯이 캄보디아에서 살아가고 있다.

함께여서, 우리의 이야기

RaonAtti





재환

사실 아직도 캄보디아에 와있다는 실감이 크게 나지 않는다.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서로를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환경적으로는 비교적 열악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하던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마음 따뜻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캄보디아에 오고 첫 한 달은 나에게 큰 질문을 한가지 던져주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달려온 너는 행복했니? 주변은 돌아보지 않은 채 저 멀리 혼자 나아가 있는 너의 모습은 행복할 것 같니?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 한 달이었다.

함께여서, 우리의 이야기

RaonAtti





지호

9월 한 달 간 가장 힘든 점은 캄보디아의 더운 날씨였다.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였는데 캄보디아 도착 3일 만에 우리의 게스트하우스의 전기가 나갔다. 전기가 나가니 물도 함께 나갔다. 3일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생각보다 캄보디아 음식은 맛있고(고수만 안 들어가면,,,) 사람들은 친절했다. 첫날 아침 등교 시간에 나를 꼭 안아줬던 어린 친구에게 감동을 받았고, 동네를 걸을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는 마을 주민 분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꼈고, YMCA 러닝센터에 있는 귀여운 학생들 때문에 하루가 너무 힘들지만 그 친구들 때문에 내일이 또 기다려졌다.

캄보디아의 첫 1주는 너무나 괴로웠다. 더운 날씨, 생소한 문화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1000번은 했던 거 같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지만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잘 해주는 YMCA 직원들 그리고 우리 캄팀 덕분에 요즘에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함께여서,
우리의 이야기

RaonAtti





현지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다. 처음 왔을 때의 막막함과 생소한 나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생각보다 적응하는 데에 참 더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몰랐던 나의 많은 모습을 알게 되고, 나에게 실망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배운다. 참 많이 부딪혔다. 그러면서 나도 몰랐던 너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알아가며 이해하게 되는 이 시간들이 정말 값지다. 그래서 행복하다. 생각해보면 이번 한 달은 나에게 여유를 선물해주고, 사소한 즐거움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달이었다. 남의 시선이,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나를 스스로 다독이면서 선을 찾아가야 했던 어려운 달이기도 했다. 느리지만, 느리게 갈 수 있어서 행복했고, 주위를 비로소 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 있었던 우리 팀원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던 순간도 있었다. 정전도 되고, 모기에도 많이 물렸고,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오늘이 아쉽다.

함께여서,
우리의 이야기

RaonAtti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함께 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

♥ Thank you ♥

위대한 캠프
RaonAtti 로 살며, 배우다